

# 66 太平洋戦下の朝鮮(1-5)

## (태평양 전하의 조선)

이 보고서는 1942 ~ 1945년 8월 까지 이 이  
 른바 조선 총독부 經政期 (종정기) 의 총독부  
 관계 중요 문서 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일본  
 국회에서 여산익이와 관련된 총독부의 내  
 문문서를 편성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 
 편지자는 일본에 있는 友邦協會 (우방협회)  
 의 간부 (전 조선 총독부 고문관리) 인 近藤 鈞一

(공도) 세이리

우방해방을 조지은 구조선충동부애근  
 무하린 사료들수 친목단체인데 이행회는  
 해방후 가지고 돌아간 자료등 많은 통치  
 자료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귀중한  
 자료들은 다시 출판하기는 ~~하~~하는 데  
 팔자는 이행회에서 많은 자료를 입수  
 했다

여기 태평양전쟁하의 조지은 1944년 7월  
 제 85회 제국의회(帝國議會)에서 자료를


당시 일본 내무성이 극소수 프린트한 것  
 인데 전쟁 말기에는 각종 중요 문서 무를 소각  
 했기에 을 통해 소각된 모면한 이 문서들  
 友邦協定 200부 한정 판으로 1962년에  
 출간한 것을 1963년에 입수했다  
 그 후 1984년 서울에 있는 國史資料院(국  
 사자료원)이란 곳에 100부 한정 판으로  
 복간한 바 있다  
 제2권에는 1943년 예산이 상세히 기록  
 되어 있다 여기는 1권과 마찬가지로

당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인 水田 直昌  
 (미즈타 나오마사)의 예산실명서 帳도 기록되어  
 있다. 이 책에 따르면 1943년의 조선총독부  
 예산은 14억7천만엔 규모였다.  
 3권에는 1895년 부터 1910년까지 구한말  
 정부의 예산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.  
 4권에는 제 86회 및 87회 제국의회 (帝國  
 議會) 상임관계 실명자 수가 ~~앞~~이체된다.  
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평년수는  
 미곡 23,300천석

장곡 16,200 천원 (매년 8,650 천원 장곡 7,540 천원)  
 제 39,500 천원 이 내 매년 만주(동북3성)  
 장곡 수입 20,000 천원 ~ 30,000 천원 을 수입 하는 한편  
 조선 비곡 6,000 천원 ~ 7,000 천원 을 일본으로 수출  
 하고 있다.  
 한편 ~~中日 전쟁~~<sup>(중일)</sup> 이후 실시된 陸軍特務隊  
 志願兵 (육군 특무대 지원병) 은 1943년 8월 1일  
 30만 294인 중 체동자는 6,300 명이 있다 한다.  
 또한 徵用 (징용) 은 1944년부터 국민 총동원  
 계획수립 134만 명 중 1944년 8월 1일 현재

515,000 명이 남방. 사하전. 일본 본토 맞기라

북방 지역  인종 송출 된 것다


또한  인종 자살기 데르연 1944년 현재


일본 만 해독자 수는 전국 평균이 22.2%

맞는데 아마 이 는 초 중 등 학교 학생의

대 중 등 차 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

그러나 인구 10만 이상의 시급 도시의

 인의 평균 해독자 수는 45.3% 로 차 리 하

고 있다  인의 이 리는 해독률 접

하기 해독 대 만히 귀중한 자료이다